2012 대림 · 성탄 판공문제지(다해)

인류의 빛

Lumen Gentium

[신앙의 해]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하여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교서 『믿음의 문』 2항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



권두언



교구 복음화국장
문희종 요한 세례자 신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적쇄신을”

연중 34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과 그 주간을 끝으로, 우리는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전례거행 중에 읽는 독서 말씀의 순환 규칙에 따라, 주일과 축일 독서는 ‘다해’를 연중 평일 독서는 ‘홀수해’의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4주간의 대림시기를 지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속적인 대림시기를 살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시기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특히 이 대림절은 세 가지 깊은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례시기입니다. 하나는 구원 신비의 종말론적 차원이 강조됨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과, 모든 신앙인 안에서 장차 실현되어야 할 구원과 마지막 날 심판자로 다시 오시어 완료하실 구원 경륜의 ‘아직’ 사이에 살면서 구세주를 깨어 기다립니다. 둘째는 희망에 찬 기다림의 시기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세주의 오심을 기쁨과 희망 속에서 깨어 기다리도록 한다. 셋째는 회개의 시기로서,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향하도록 끊임없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특별히 회개의 삶으로 주님을 영접할 길을 닦으며 기쁨과 희망에 찬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기도와 신앙교육으로 영적생활에 더욱 매진하여 성화되도록 하고, 외적으로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때마침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는 2013년 11월 24까지 ‘신앙의 해’**를 지내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우리 모두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 하여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자의교서 『믿음의 문』 2항). 더욱이 이 신앙의 해는 수원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는 ‘교구 희년’의 여정 안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새 사목교서 『교회와 신앙』**을 반포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적쇄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 동안 수원교구가 열의를 다해 추진해 온 여러 사목정책이 더욱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회개를 통한 신앙의 내적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교회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향상시키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더욱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교회와 신앙』 16쪽).

이에 2012 성탄판공문제집은 〈신앙의 해〉와 〈교구설정 50주년〉 두 시기의 의미를 모두 담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4대 헌장(전례 · 교회 · 계시 · 사목헌장)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대림 묵상과 실천표’를 작성하고 ‘성탄 판공 배움터’를 공부하는 가운데, 희망찬 대림시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러두기

1. 이번 대림시기 묵상 실천표와 판공 문제지는 대림 각 주일 복음말씀(다해)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년) 〈4대 헌장〉을 중심으로 총4개의 주제로 꾸며져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대림 1주부터 한 주간씩 실천표를 작성하고 판공 문제를 풀어갑시다.

2. 매주 대림묵상 실천표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묵상 한 뒤 정하도록 합시다.

3. 판공문제는 한 주간에 15문제씩 총 60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100점 만점 기준). 채점상 편의를 위해 매주 각 문제 마지막 부분에 [답안지]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답안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4. 문제는 매주 관련된 “신앙 배움터” 꼼꼼히 읽어두면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부 이하 자녀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부모가 먼저 공부한 뒤 설명해주도록 합시다.

5. 가족이 대림시기 동안 정한 실천 사항은 대림시기 이후라도 꼭 실천해 나갑시다.

2012 대림 · 성탄 판공문제지(다해)

인류의 빛

Lumen Gentium

Contents

권두언 2

대림 제1주간 “거룩한 공의회”

가족이 함께 하는 대림묵상과 실천 I 4
대림 신앙배움터 I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최 배경과 문헌들** 6
판공문제 I 11

대림 제2주간 “인류의 빛”

가족이 함께 하는 대림묵상과 실천 II 14
대림 신앙배움터 II **전례헌장과 교회헌장** 16
판공문제 II 25

대림 제3주간 “하느님 말씀”

가족이 함께 하는 대림묵상과 실천 III 28
대림 신앙배움터 III **계시헌장** 30
판공문제 III 35

대림 제4주간 “기쁨과 희망”

가족이 함께 하는 대림묵상과 실천 IV 38
대림 신앙배움터 IV **사목헌장** 40
판공문제 IV 44



I

✣ 대림 제1주간

‘거룩한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묵상으로의 초대

[대림 제1주일]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 제1주일 복음을 통해, 재림하실 주님을 늘 깨어 기다리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시간과 시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행히 그 날이 다가오면, 어떤 하늘의 표징들이 미리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 그 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루카 21,25–27). 이어서 **복음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으로부터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21,34–36).

이처럼 구원의 역사(구약과 신약) 안에서 “표징”은 시대가 처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구세주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 시대의 표징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며 때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참 뜻’을 발견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예견한 교회는 이미 50년 전 **시대의 징표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길’**을 제시해, “인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며, 공의회 문헌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신앙 여정의 풍요로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로 시작해요

1. 초대기도 (성호를 긋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합시다)

2. 복음묵상

-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루카 21장 25–28. 34절–36절’(대림1주일 복음)을 읽습니다.**
- **다른 한 분이 아래 글을 낭독합니다.**

✣ **하늘의 표징**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불신앙의 구름이 신앙의 빛을 가릴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신앙에 따라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말라 4,2 참조).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 태양이 더욱 빛나거나 어둡게 보이듯이, 영적인 빛도 믿는 이들의 신앙에 따라 다르게 비추입니다. … 육신의 악이 하늘의 빛을 가린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에서 하느님의 빛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시련을 받을 때 지상의 삶만을 사랑하면 하느님의 빛이 자주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 암브로시우스, 「루카 복음 강해」 10,36–37

✣ **시대의 징표**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세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회는 현세와 내세의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4항

- **가족 모두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3. 가족과 이야기 나누기

- **복음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무엇입니까?**
- **삶 속에서 나를 특별히 이끄시는 하느님의 표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오늘날 하느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대의 징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 나와 가족의 신앙 실천표 (가족이 함께 작성하기)

- 신앙생활이란, 세상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표징을 잘 식별하고, 그 뜻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들을 세워봅시다.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실천 사항						

5. 마침기도 (가족이 잘 아는 성가를 부른 후, 서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줍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최 배경과 문헌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배경

2천년 교회 역사에서 21차례의 보편공의회가 열렸다.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구원의 진리가 이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놓였을 때, 또는 신자들이 본연의 소명, 곧 거룩한 삶과 구원에의 초대에 응답하는 데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공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교회는 전 세계 주교들이 교황과 함께 모여 가톨릭교회의 정통적 가르침을 재확인 또는 명료화하여 선포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이 구원의 여정을 올바로 가도록 이끌어 왔다.

이처럼 교회의 구원 진리를 선포하는 공의회는 그 소집 주체도 이끄시는 분도 궁극적으로 성령이기에, 교회 역사상 어떤 공의회든 오늘의 우리에게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공의회에서 선포된 교의나 가르침은 항상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재해석' 혹은 '재수용' 되어야 한다.

이는 공의회의 결정이 과거 시대의 언어와 표현의 옷을 불가피하게 입고 있다면, 다시 동시대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알아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가 개막된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의식, 사회, 당면한 문제는 그 시대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럼에도 공의회의 성격상, 그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재해석하는 작업의 첫 출발점은 무엇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과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1) 중요한 두 가지 물음 : 인간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찰스 다윈이 1859년『종의 기원』을 출판했을 때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인간이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원숭이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진화론은 첫 번째로 중대한 현대적 물음을 제기했는데,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다.

교회는 언제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었다. 바로 하느님 안에 인간의 기원이 있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살도록 부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다른 사람들의 대답은 교회의 가르침에 도전했고, 실제로 세상사에 대한 교회의 권한은 조금도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더구나 19세기 말에는 '세속주의'가 광범위하

"공의회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확실한 나침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학에 따라 읽고 이해한다면, 공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교회의 쇄신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신앙의 해' 자의교서『믿음의 문』5항

게 확산되었다. 이 세속주의는 하느님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살겠다는 현대 사회의 한 사조이다. 사람들의 의식은 변화했고, 실증적 학문과 과학기술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근대국가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두 번째로 중대한 현대적 물음을 제기했는데, 곧 '교회란 무엇인가?' 혹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하지만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1869~1870년에 개최된 〈제1차 바티칸공의회〉는 유럽의 혁명적인 혼란이 야기한 그 원인들 앞에서 우선, 교회를 방어하기 위한 길을 택했다. 대표적으로 계몽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혁명은 철학적으로 반(反) 가톨릭적이었고, 폭력으로 가톨릭 성직자들을 공격했다. 따라서 당시 공의회의 결정은 자유주의 사상과 과학의 발전을 경계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욱 거리를 두는 조치들만 취한 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시급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제1차 바티칸공의회는 세계 변화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제일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미결로 남겨 둔 것이다.

2) 가톨릭 개혁운동

20세기가 시작되며 교회는 현대세계와 그로 인한 의문들을 단죄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여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결정적인 전기를 가져왔다. 인류의 파멸이라는 고통의 극치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 종교적인 내면과 진실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제도라는 틀로 제한되었던 교회라는 실체가 본격적으로 스스로의 본질에 대한 추구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무엇보다 교회를 신비 안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제도 안으로 한정되었던 교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부각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도 교회에 대한 재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27 창설된 프랑스 가톨릭 노동 청년 운동 (JOC)의 활약이다. 젊은이들 나아가 성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르심에 대한 교회적인 책임감을 강하게 고취하였고, 무엇보다 삶에서의 사도직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전례의 쇄신과 교회 일치에 대한 모색 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일어난 신학과 교회 생활 전반의 쇄신 운동은 수많은 가톨릭 개혁 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며,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운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❶ 성서 운동

성서를 신학과 신앙의 원천으로 재정립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매일의 성서 읽기를 유도하고 성서로부터 신앙을 회복하고 강화시키게 했다. 그리하여 영적인 교육과 사목적 직무에서 성서의 의미가 회복되고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

한 성서 운동은 통일적인 주도세력 없이 나라마다 서로 다른 형태를 띠면서 부흥되었는데 특히 전례 운동과 깊이 결합되었고 수많은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❷ 전례 및 교부 운동

무엇보다 그리스 교부인 오리게네스(Origenes)의 성서 주석서들이 재번역되고 영적 진보를 위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교부들에 대한 주목은 동방 교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전례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대두된다. 특히 독일의 청년 운동과 함께 전례 운동이 발전되었는데 평신도들의 전례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참여, 동방 전례에 대한 연구 (특히 성주간 전례), 전례의 모국어 사용 등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다.

❸ 현대 세계에 대한 개방

지금까지의 세상에 대한 교회의 인식은 악이 들끓는 세속이었다. 거룩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세상을 가르치고 악을 물리쳐 거룩한 교회로 인도해야 했다.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세상을 더 이상 타파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게 했다.

❹ 종교 일치 운동

동방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교부들에 대한 재접근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게 했다. 상호 단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감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동 고백에 더 주목하게 하고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을 냉정히 고찰하게 하였다. 불신과 반목, 상호 파문과 저주로부터 이제 상호간의 이해 노력, 공동 고백에 대한 동일



한 시각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종교 일치라는 커다란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했다.

2.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 ~ 1965)의 중요성

앞선 일련의 가톨릭 운동들은 새로운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촉매로 작용했다. 1959년 새 교황 요한 23세가 21번째 보편 공의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당시 교회는 물론 세상도 놀라워했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20번의 공의회는 이단의 창궐이나 교회 내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소집되었던데 비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위해서는 그런 교회 내 · 외적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징표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였다. 이는 몇몇 현대 신학자들의 냉철한 시대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한 것이며, 시대적 혜안을 지닌 교황 요한 23세로 하여금 시의적절하고 결단력 있는 처방을 교회에 내릴 수 있게 했다.

곧, 제2차 바티칸공의회라는 현대 교회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다.

1) 공의회의 모토와 목표

제2차 바티탄공의회는 '현대화'(Aggiornamento)라는 모토 아래 '대화'와 '자성'이라는 구호로 교회의 '개혁과 쇄신'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의회는 '신앙의 원천'을 뒤돌아보고 나서, 현대 세계의 변화된 상황 안에서 그를 다시 표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교황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두 방향으로 교회적 삶의 방식을 찾고자 했다.

첫째, 초대 교회의 삶과 성경을 토대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원까지 되돌아가는 것이었고, 둘째로 미래를 내다보고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의회는, 교회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개방의 필요성 천명하면서 현대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했다. 도대체 '오늘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현대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이 두 요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되었다.

"현대 인간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이다(사목헌장 1항). … 교회는 현대 세계에 있어서 교회의 존재와 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고자 한다.(2항)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는 시대의 특징을 탐구하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인류와 더불어 대화하고 복음의 빛으로 해명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사목헌장 4항).

2)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의 구성

앞서 살펴본 모토와 목표를 전제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오늘날 교회와 인류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성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의 여러 불균형과 왜곡들을 그 본질로부터 회복시키려 노력했다. 그 결과는 공의회 교부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의 오랜 토론과 수정, 회의 표결을 거쳐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에 담겨져 반포되었다.

- 첫째, 4개의 헌장 : 전례헌장, 교회헌장, 계시헌장, 사목헌장.
- 둘째, 9개의 교령 :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동방교회들에 관한 교령,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사제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 셋째, 3개의 선언 : 그리스도교인 교육에 관한 선언,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이렇게 구성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이 지니는 본질적 성격은 신앙에 관한 내용이며, 동시에 그 내용을 종합한 새로운 교리서의 역할이다. 곧 공의회는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며(교회헌장),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화되고 성화되어야 하며"(전례헌장),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계시헌장), "교회의 내적인 본성과 교회가 우리 시대와 맺는 관계"(사목헌장)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3)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신앙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신앙과 관련된 가르침은 매우 분명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 자의교서 『믿음의 문』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은 무엇보다도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전 인격적 응답이다(계시헌장, 5항). 이 응답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놓으시고, 친구처럼 말을 걸어오시는 하느님께, 나 역시 '자기 자신을 다 내놓는' 자기 투신(증여)로 이루어진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이 인격적 응답이 가톨릭 교리에 대한 학습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인식과 신앙의 투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다.

셋째, 전 인격적 응답으로서의 신앙은, 이제 그 자체를 사랑과 희망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사랑이란 수직적인 차원, 곧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수평적 차원인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신앙과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성에 도달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끝 날 그 완성에 도달할 것을 믿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믿고 - 사랑하며 - 바라는'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신앙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교서 『믿음의 문』에 잘 드러난다. 즉, 교서에서 교황님은 신앙고백의 중요성과 함께 그에 일치하는 신앙의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가톨릭교회 교리 내용을 아는 것에 대해 강조하신다. 곧 신앙이 전 인격적 자기 투신이요 실천이지만,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탐구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8-11항 참조).

나아가 교서의 마지막 부분은, 신앙이 사랑의 실천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14항). 곧 신앙은 '실천을 통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참된 증거자'가 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Christopher Jamison(외), 『산다는 것이란 되어 간다는 것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읽기』, 정일 역, 분도출판사, 2000/ 정하권, 『교회의 쇄신』, 분도출판사, 1976/ K. Rahner,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이봉우 역, 분도출판사, 1994/ _____, 『교회의 미래상』, 정한교 역, 분도출판사, 1981/ 최현순, "'신앙의 해'에 다시 읽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경향잡지」(2012.10), 36-42.

판·공·문·제

✣ 대림 제1주간 I

1.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개막 50주년을 맞이하여, 2012년 10월 11일부터 오는 2013년 11월 24일까지 선포하신 해[年]의 이름을 쓰시오. 1점

2.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신앙의 해는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하여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되찾는 시간이다.
② 신앙의 해는 수원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는 '교구 희년' 안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③ 신앙의 해에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성지순례이다.
④ 신앙의 해 동안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3. 수원교구 2013 ~ 2014년 사목교서 〈교회와 신앙〉의 중점 목표를 쓰시오(권두언 참조).

4. 대림 제1주일 복음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주제와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1점

① 재림　② 깨어 기다림　③ 하늘의 표징　④ 최후의 심판

5. 구원의 역사 안에서 '표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표징은 시대가 처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구세주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간을 준비시킨다.
② 오늘날 세상에 드러나는 '시대의 표징'은 매우 분명하고 저절로 밝혀진다.
③ 시대의 표징 안에서 하느님의 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④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가 현 시대의 징표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길을 신자들에게 보여준다.

6.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몸소 사람이 되신 "인류의 빛"은 누구입니까? 1점

7. 교회의 '거룩한 공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2천년 교회 역사에서 21차례의 보편 공의회가 열렸다.

②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구원의 진리가 이단의 출현으로 위기에 놓였을 때 열렸다.

③ 공의회에는 주로 교황청과 유럽의 주교들이 모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선포했다.

④ 공의회의 본질적 소집 주체와 이끄시는 분은 교황님이다.

8.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개최 배경이 된 것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점

① 19세기 중엽 진화론의 출현으로 '인간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물음이 제기되었다.

② 유럽을 중심으로 하느님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살겠다는 '세속주의'가 확산되었다.

③ 실증적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근대국가 체계가 확립되었다.

④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9.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앞서 일어난 '가톨릭 개혁운동'에 대한 설명을 올바로 연결하시오.

① 성서운동 •
② 전례운동 •
③ 종교 일치 운동 •

• ㉠ 평신도들의 전례에 있어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국어 사용 등의 방안 연구
• ㉡ 매일 성서 읽기를 유도하고, 성서로부터 신앙을 회복하고자하는 노력
• ㉢ 동방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출발로, 상호 단죄의 역사에서 벗어나 신앙에 대한 진정한 공동 고백에 더 주목하게 되는 움직임

10. 1959년 새 교황에 선출됐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소집을 선언한 교황님은?

11~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차례로 쓰시오.

제2차 바티탄공의회는 '(11.)'(Aggiornamento)라는 모토 아래 '대화'와 '자성'이라는 구호로 교회의 '(12.)'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의회는 '신앙의 원천'을 뒤돌아보고 나서, 현대 세계의 변화된 상황 안에서 그를 다시 표현하는 것이었다.

13.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모토와 목표를 보충하는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초대 교회의 삶과 성경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원까지 되돌아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미래를 내다보고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③ 교회가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보다 높은 거룩함과 구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④ 교회는 현대 세계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와 활동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구성하는 4대 헌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점

① 전례헌장 ② 교회헌장 ③ 계시헌장 ④ 일치헌장

15.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신앙과 관련된 가르침에 관한 특징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신앙은 무엇보다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전 인격적 응답이다(계시헌장 5항)

② 계시에 대한 응답은 교리 공부의 차원을 능가한 개인의 영성적 차원이다.

③ 인격적 응답으로써의 신앙은 '믿고 – 사랑하며 – 바라는' 것이 긴밀히 연결된 상태이다.

④ 신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대림 제1주간 판공문제 답안지

※ 1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2점 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II

✣ 대림 제2주간

‘인류의 빛’

Lumen Gentium



묵상으로의 초대

[대림 제2주일]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교회헌장』 1항)이십니다. 대림시기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신비를 새롭게 깨닫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대림 제2주일 복음(루카 3,1–6)에서 ‘요한 세례자’는 빛으로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곳곳에는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치 않은 미움과 분열, 물질주의와 쾌락의 ‘어둡고 굽은 길’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예언자와 세례자 요한처럼 용기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언자적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 앞에서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자신의 참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았고, 세상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한 하느님 백성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실천을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표징이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교회헌장 1항 참조). 따라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성사’가 되어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로 시작해요

1. 초대기도 (성호를 긋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합시다)

2. 복음묵상

-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루카 3장 1–6절’(대림 2주일 복음)을 읽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다른 한 분이 아래 글을 낭독합니다.**

✣ “곧고 평탄한 주님의 길”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을 때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사악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길을 곧게 내십시오. 선을 향하는 모든 길은 곧고 평탄하며 편합니다. 그러나 굽은 길은 그 길에 접어든 사람들을 악에 이르게 합니다.

–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루카 복음 강해」 6

- **가족 모두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3. 가족과 이야기 나누기

- **복음말씀과 교부의 글을 읽고, 침묵 중에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무엇입니까?**
- **예수님은 이번 성탄에도 어김없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나는 세례를 통해 교회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 사명에 어느 정도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4. 나와 가족의 신앙 실천표 (가족이 함께 작성하기)

- 이번 주간에는 세상에 예수님의 뜻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찾아봅시다.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실천 사항						

5. 마침기도 (가족이 잘 아는 성가를 부른 후, 서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줍니다.)



「전례헌장」과 「교회헌장」의 중심내용

이번 성탄판공문제집의 목적은 신자들에게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맛보이고, 공의회의 가르침이 모든 신자들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를 알리는 것이다. 대림 1주간 신앙 배움터에서 우리는, 그 첫 단계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배경과 공의회 문헌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 단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년)을 찾아 읽고, 각각의 내용을 오늘날의 상황 안에서 이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림 2～4주간 신앙 배움터는 문헌의 내용을 지금 당장은 접할 수 없거나 훗날 읽기를 준비하는 신자들을 위해 4대 헌장(전례 · 교회 · 계시 · 사목헌장)의 선포배경과 중심내용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이 헌장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기본적 의미를 밝혀주는 열쇠를 제공하는 까닭에 매우 중요하며, 나머지 9개의 교령과 3개의 선언이 제공하는 실천적 내용의 근거를 담고 있다.

1. 전례헌장

'전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이다. 그렇다면 '파스카 신비'란 무엇인가? 이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함으로써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이다.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원 업적을 날마다 기념(Anamnesis)한다. 이 재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희생의 신비에 깊이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전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가장 크게 이바지 한다"(전례헌장 2항).

이러한 파스카 신비의 거행을 전례의 중심에 복구한 것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헌장의 주요한 성과다.

1) 전례헌장의 선포배경

'현대화'(Aggiornamento)라는 모토로 시작한 교회 개혁은 전례에서 시작됐고 또한 전례로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의 전통이 있는 반면에 시대와 지역, 민족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부분들로 인한 다양한 전통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전례 개혁이 필요했던 것일까?

문화적으로 볼 때, 중세를 풍미했던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 그리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간격이 외적, 내적으로 점점 멀어졌고 그것은 전례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전례공간과 언어, 음악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식들이 진행되는 제단은 거룩한 공간이라 생각하여 낮은 담으로 평신도들이 있는 공간과 극명하게 구분이 지워졌으며, 전례언어인 라틴어는 신자들이 못 알아듣고 주례자와 복사 간에 주고받는 정도로 신비스런 언어로 자리했다.

음악은 신자들이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품격이 올라갔고 성가대는 점점 어려운 성가를 선호하며 자신들의 음악성을 드러내는 데 자부심을 가졌다. 성가는 더 이상 신자들의 것이 아니라 전문 성가대원들과 성직자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전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평신도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듣기 쉽고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신심행위에 몰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유럽의 수도원과 선구적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전례의 본래적 의미를 찾으려는 연구와 시도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대부분은 당시 전례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 동의했다. 따라서 전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쇄신을 위한 전례운동을 전개했다. 무엇보다 교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인 '그리스도 사제직'을 전례 안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전례가 단순히 법률적 차원에서 예식의 법주가 아님을 드러내고자 했다.

2) 전례헌장의 목표

전례헌장 1항은 공의회가 세상에 내놓은 첫 발표문이다. 공의회는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공포했다. "거룩한 공의회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진하고, 또 모든 이를 교회의 품으로 부르는 데에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강화하려고 하므로, 특별히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배려도 자기소임으로 여긴다." 이처럼 전례쇄신은 교회가 공의회의 지향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헌장, 10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헌장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❶ **전례헌장은 전례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를 내렸다.** 즉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7항).

❷ **능동적인 전례 참여의 촉진을 언급하였다.**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진에서는 온 백성의 완전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14항).

❸ **헌장은 전례학과 전례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학문은 신학교와 수도자 신학원의 필수 전공과목이어야 하고, 대학 신학부에서는 주요 과목이 되어야 한다"(16항).

❹ **전례 가운데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전례 쇄신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교회에 참으로 확실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개혁을 하지 말아야 한다"(23항). 특히 성서 봉독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전례 거행 안에서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하고 더욱 적합한 성서 봉독이 마련되어야 한다"(35항).

❺ 이 밖에 전례 거행의 공동체성, 전례의 단순성과 명료함(34항), 엄격한 형식의 통일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여러 민족의 전통과 특성에 대한 적응(37~40항), 모국어 사용에 대한 허가와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공의회의 일반적인 규정과 지침들이 제2장부터 제7장에 걸쳐 해당 항목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3) 전례 헌장의 중심내용

제1장 :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일반 원칙(5–46항)

전례에 있어서 어떤 변화는 전례의 본질에 근



거하는 것으로, 전례는 주교에 의해서 집전 되는 공동체의 예배이며, 감각할 수 있는 표징으로 드러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현존하신다(7항). 그러므로 사람들이 전례에 나아갈 수 있기 전에 먼저 신앙과 참회를 권고 받을 필요가 있다(9항). 또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제반 전례 의식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도록 지도되기를 바란다(14항). 이 교육은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신학생과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들의 특별한 교육도 포함한다.

한편 전례에 관한 규정은 교회의 권위자(사도좌와 지역교회 교구장)에 의해서 개혁될 필요가 있으며(22항), 전례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24항).

전례의 조절을 위한 규정은 교계제도로부터 나오고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다. 개혁해야 할 다른 이유들은 전례의 교육적이거나 사목적인 특성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식은 그 지역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쓸데없는 반복을 삼가야 하며, 간단명료해야 한다(33–34항). 또한 전례언어는 라틴어의 사용이 유지되지만, 미사 또는 전례의 다른 부분에서 지역 모국어의 사용을 허락한다(36항).

나아가 전례는 지역교회 교구장 주교의 허락하에 각기 다른 기질이나 전통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구나 본당에서 전례 생활의 촉진은 주교와 본당 신부 그리고 사목적으로 전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전문가와 더불어 본당 안에 설립된 전례 위원회의 풍부한 공동체의 감수성에 달려 있다(42항).

제2장 : 성체성사의 지성한 신비(47–58항)

교회는 신자들이 미사 안에서 재현되는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묵묵한 방관자인 양'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48항). 이를 위해 미사 통상문은 각 부분의 고유한 본질과 상호 연관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신자들의 경건하고 능동적인 참여가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50항). 그리고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의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도록 널리 개방되어야 하고(51항), 보편지향기도를 복구시켜야 하며(53항), 미사에 있어서 '모국어에 적당한 자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54항). 또한 신자들이 미사에서 영성체를 하도록 크게 권장되어야 하며, 특정한 미사(예를 들어 서품미사와 서원미사 그리고 세례식에 이어지는 미사 등)에서는 '양형 영성체'도 가능하다(55항). 이와 더불어 본미사로 불리던 성찬 전례의 준비에 불과했던 말씀 전례도 미사의 본래 요소임 강조됐다(56항). 한편, 공동 집전을 통한 사제들의 단일성 확인이 강조되는데, 개인적이며 사적인 미사가 성행되던 관행에서 본래 초기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미사의 공동 집전을 부활시켰다(57항).

제3장 : 다른 성사와 준성사(59–82)

성사는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성사의 표징을 신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성사를 열심히 자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59항). 그 밖에 교회는 준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60항). 그러므로 성사와 준성사의 전례는 잘 준비된 신자들에게 생활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화되게 한다. 또한 거의 모든 사물을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면 인간 성화를 이루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61항). 한편, 성사 역시 개정된 전례서에 따라 모국어로 거행되어져야 한다.

제4장 : 성무일도(83–101항)

교회는 성찬례의 거행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특히 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주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83항). 성무일도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낮과 밤의 모든 흐름이 하느님 찬미를 통하여 성화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제들이 그리고 교회의 규정으로 이 일에 위임된 이들이나 또는 공인된 형식으로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찬미의 노래를 올바로 바칠 때에, 이는 참으로 당신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84항).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는 사제들이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든 성무일도를 더 잘 완전히 바치도록, 그들이 살아가는 현대 생활의 환경이 고려되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87–88항). 성무일도는 교회의 공적 기도로

서 신심의 원천이며, 개인기도의 자양이기 때문이다(90항)

제5장 : 전례주년(102–111항)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한해의 흐름을 통해 지정된 날들에 하느님이신 자기 신랑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는 것을 자기 임무라고 여긴다. 주간마다 주일이라고 불린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일 년에 한 번 주님의 복된 수난과 함께 이 부활 축제를 가장 장엄하게 지낸다. 한 해를 주기로 하여,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강림 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102항). 마찬가지로 교회는 연례 주기 안에서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의 기념도 경축한다(104항). 특히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기원을 둔 파스카 신비를 여덟째 날마다 경축한다. 그 날은 당연히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 불리며, 전례주년 전체의 토대이며 핵심이다(106항).

제6장 : 성음악(112–12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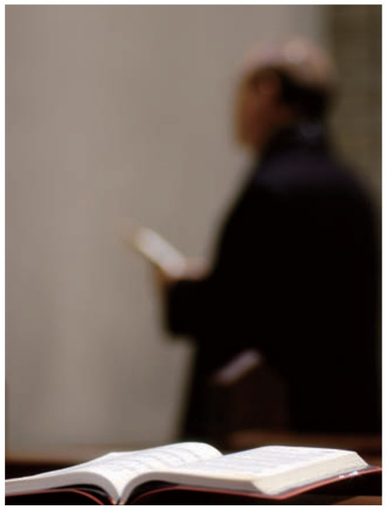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성음악은 전례 행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더욱 거룩해질 것이다(112항). 이 밖에 그레고리안 성가는 로마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전례 행위 안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며(116), 예규의 규정에 따라, 거룩한 신심 행사들과 전례 행위 안에서 신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대중 성가를 적극 장려해야한다(118항). 이를 위해 음악가들은 자신이 성음악을 계발하고 그 보화를 발전시키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식하여, 진정한 성음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신자 집단 전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돕는 곡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해야 하며, 주로 성서와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121항)

성미술과 성당기물(122–130항)

교회는 언제나 미술의 애호자였고, 미술가들의 작품들 가운데 무엇이 신앙과 신심에 또 소중하게 전수된 법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거룩한 용도에 알맞은 특성들을 분별해 왔다(122항). 따라서 우리 시대와 모든 민족과 지역의 미술은,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예식에 마땅한 존경과 경외로 봉사한다면, 교회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123항). 성당 건축에서는 전례 행위의 실행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확보에 적합하도록 힘써야 하며,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어야 한다(124항). 그러나 그리스도교 백성이 덜 건전한 신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적절한 수량과 알맞은 순서로 배치해야 한다(125항).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金錫中, "전례헌장",『한국가톨릭대사전』권1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7447~7449/ Christopher Jamison(외), 『산다는 것이란 되어 간다는 것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읽기』, 정일 역, 분도출판사, 2000/ 윤종식, "전례헌장 해설 상", 〈가톨릭 신문〉(2012.2.19).

2. 교회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교회헌장은 그 빛을 받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사명을 지닌 교회의 본질과 구성원에 대해 서술한다. 교회헌장은 이천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자신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문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기에 앞서, 우선 그 선포배경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교회헌장의 선포배경

초대교회 이후, 혹독한 박해를 신앙의 열정으로 견뎌낸 가톨릭 교회는 313년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전과 다른 상황을 경험한다. 즉 신앙의 순수성과 신자 공동체의 삶이 주변 이교문화와 세속화의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395년 그리스도교의 국교화로 한층 심화됐다.

① 교회의 제도화

교회는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제국의 위계 구조를 이어 받아, 교황은 황제의 서열에 그리고 주교들도 국가 고위직의 특전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교회 전례는 비잔틴 제국 궁정의 화려한 의례와 복장을 흡수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시작된 교회의 성장은, 내적인 면(영성적 측면)보다 외적인 요소(제도적 측면)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교회는 제도 · 직분 · 권한을 자기실현의 도구로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중세를 거치며 교회의 권위는 피라미드식 교계제도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간주되었다.

② 교회의 위기

그러나 근대 계몽주의 사조와 무신론 그리고 과학이 고개를 들면서 교회는 물론 하느님과 신앙이 거부되고, 그 자리를 인간 이성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18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중이 줄줄이 교회를 등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일련의 교회의 위기 앞에서 소집된 〈제1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쇄신을 도모하는 대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의 문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시대 역행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즉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은 한층 확

고해지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구성원은 교계제도 내에서 그 종속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상되는 교회의 영적인 개념은 무시되고, 하느님 백성 개념을 다만 정치적 · 사회적 개념으로 파악해 교회에 접목하였다.

③ 새로운 인식

그러자 변화하는 세상에서 위기를 느낀 교회 내부에서 자신의 본질에 대한 강력하고도 새로운 인식이 일어났다. 특히 선구적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제도주의적 교회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회관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당시 세상은 1,2차 세계대전으로 극한의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종교적인 내면과 진실성에 눈을 돌리던 때였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들은 '원천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고, 현대 세계 속에서 교회를 쇄신'하기 위한 두 번째 바티칸공의회를 탄생시키는 촉매가 됐다.



2)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준비되었으며, 육화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립되어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교회헌장 3항). 그러므로 교회의 원천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다.

① 초대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부활을 체험한 제자 공동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써(사도 2,1-36 참조) 그들이 세상에서 '하느님 백성, 곧 교회' 임을 공식 선포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 사도(마태 16,18-19 참조)는 바로 이날 '성부께서 성자를 들어 올리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자께서 다시 그 성령을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에게도 부어주셨다'고 선언했다(사도 2,32-33 참조). 이러한 성령의 '사도계승' 전통은 이후 전개되는 교회 발전의 기본 초석이자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한편, 초대교회의 모습은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모임이었다. 당시의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성찬 모임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였고, 안식일 다음 날(주님의 날) 신도들의 집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아가페(친교식사)를 나누는 중에 성찬례를 거행하였다(사도 2,46; 로마 16,5 참조).

②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7항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성자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불러 모으신 형제들을 '당신의 몸, 곧 교회'로 신비스럽게 구성했다.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은 관절과 힘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받으며 서로 연결되어 하느님의 계획대로 자라난다(콜로 2,19 참조). … 지상에서 순례하는 우리는 환난과 박해 중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머리에 연결된 지체로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을 참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은총에 완전히 참여하여 그분과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교회의 영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③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구약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성립된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신앙의 답변으로 성립되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의 으뜸은 그리스도 자신이요, 이 백성의 신분은 하느님 자녀다운 품위와 자유다. 나아가 이 백성의 법은 그리스도 사랑의 계명이며, 이 백성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다(교회헌장 9항 참조).

여기서 '백성'이라는 용어는 앞서 '몸'이라는 개념보다 교회의 지상상태를 더 잘 표현해 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도단 위에 세우시고 역사 진행 중에 계속 후계자가 배출되어 이 백성을 하나의 유기체로 유지 발전하도록 안배하셨다. 결국 하느님 백성이라는 개념은, 교계제도를 갖춘 교회 공동체의 가시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다.

④ 순례자들의 교회

현세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는 '아직'은 미완성인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 여정을 계속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전진한다. … 교회는



그 품안에 죄인들도 품고 있으므로 거룩하면서도 항상 정화되어 나아가야 하며 회개와 쇄신을 끊임없이 계속한다"(교회헌장 8항).

3) 〈교회헌장〉이 강조하는 교회모습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관을 현대사회 안에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친교로서의 교회'이다. 이 교회관은 하느님과의 만남(수직적)을 중요시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며(수평적), 개인의 이성보다는 공동체의 정서를 반영한다.

① 친교의 성사인 교회

교회는 본질적으로 친교의 신비 안에 있다. 이렇게 교회를 친교로 이해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지이며 도구"이기 때문이다(교회헌장 1항).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전서에서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0,17) 라고 한 말은 친교의 중심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그리스도는 빵을 나누는 이 친교 안에서 인간을 당신 몸으로 합치시키시고, 그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끌어내 공동체화 결합시키시기 때문이다. 이로써 교회 공동체는 성찬(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나아가 성체를 영하는 모든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② 교회의 친교원리

교회 공동체의 친교 원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인간과 이루시는 일치다. 〈교회헌장〉은 하느님 삼위 사이의 친교적 관계를 통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전달함으로써 인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적 친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규정한다(2-4항 참조). 따라서 삼위일체적 친교가 공동체의 인격적 친교의 원천이자 출발점이므로, 교회는 이제 세상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창세기 2장 24절은 두 인간 사이의 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일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의 운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인간을 결합하는 일치의 끈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없으며,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이에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견하시어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일치를 이루셨다.

③ 친교의 삶

이처럼 관계 안에서 일치를 지향하는 '친교로서의 교회관'은 현 시대에 큰 호소력을 지닌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체계화된 조직체보다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개념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산업사회 안에서 빚어지는 개인주의와 익명화 과정 속에서 소속감과 친교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갈구하고 있다. 결국 '친교'(Communio)라는 말은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반영되는 삶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공동의 나눔과 섬김의 생활 자세를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정하권, 「교회론」 I · II, 분도출판사, 1979:1981 /, 「교회의 쇄신」, 분도출판사, 1976/ K. Rahner,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분도출판사, 1994 / _____, 「교회의 미래상」, 분도출판사,1981/ J. Ratzinger, 「그래도 로마가 중요하다」, 바오로딸출판사, 1994/ H.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1978/

판·공·문·제

대림 제2주간 II

1. 대림 제2주일 복음(루카 3,1-6)에서 구세주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이는 누구인가? 1점

① 요한 세례자 ② 교회 ③ 이사야 예언자 ④ 성모 마리아

2.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실천을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표징이자 도구는 무엇인가?

3. 교회의 공적 예배로서,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은? 1점

① 신심행위 ② 영성생활 ③ 단체활동 ④ 전례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특히 "거룩한 성찬의 ( )"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원 업적을 날마다 ( )[Anamnesis]한다.

① 성사 – 모방 ② 식탁 – 반복 ③ 희생제사 – 기념 ④ 말씀 – 기억

5. 〈전례헌장〉의 선포배경과 관련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전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전통이기 때문에 온전히 옛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② 중세의 문화는 교회 전례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간격이 내·외적으로 멀어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③ 전례언어인 라틴어는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언어처럼 자리 잡았다.

④ 전례음악은 신자들이 따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품격이 올라갔고, 전문가와 성직자들의 것이 되었다.

6. 전례헌장의 주요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전례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 •	• ㉠ 성서 봉독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전례 거행 안에서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하고 더욱 적합한 성서 봉독이 마련되어야 한다"(35항).
② 능동적인 전례참여 촉진 •	• ㉡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진에서는 온 백성의 완전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14항).
③ 전례쇄신 필요성 •	• ㉢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7항)

7. 전례헌장 제1장의 '전례 쇄신과 증진을 위한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사람들이 전례에 나아갈 수 있기 전에 먼저 '신앙과 참회를 권고 받을 필요가 있다(7항).
② 전례 의식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도록 지도되기를 바란다(14항).
③ 전례언어인 라틴어의 사용이 금지되며, 미사와 전례에서 모국어의 사용만 허락된다(36항)
④ 전례에 관한 규정은 각 본당의 주임 사제에 의해서 개혁될 필요가 있다.

8. 전례헌장에서 '성체성사의 지성한 신비'(제2장)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신자들이 미사 안에서 재현되는 신앙의 신비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② 미사에서 신자들은 죄의 깊은 성찰과 고해성사 없이 영성체에 초대받을 수 없다.
③ 특별한 미사(서품식, 서원식 등) 외에 신자들의 양형 영성체는 불가하다.
④ 성찬 전례의 준비에 불과했던 말씀 전례도 미사의 본래 요소임이 강조됐다.

9. 전례헌장에서 '성음악'(제6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전례 외적요소이다.
② 성가의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며, 주로 성서와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③ 전례의 대중화를 위해 그레고리안 성가보다 대중 성가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
④ 성음악은 거룩한 노래로서 전례 성가대 혹은 주례자를 위한 음악이다.

10.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 라는 말로 시작하며, 교회가 자신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서술하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문헌의 이름은? 1점

① 교회헌장 ② 계시헌장 ③ 전례헌장 ④ 사목헌장

11. <교회헌장>의 선포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중세까지 교회의 성장은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영성적인 면보다 제도적인 면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② 근대 계몽주의 사조와 무신론 그리고 과학기술이 고개를 들면서 교회는 물론 하느님과 신앙이 거부되기 시작했다.
③ 제1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쇄신을 도모했고, 교회의 문을 세상에 열기 시작했다.
④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의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금 종교적인 내면과 진실성을 성찰하기 시작했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차례로 쓰시오.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준비되었으며, 육화된 성자 (　　)에 의해 창립되어 (　　)과 함께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교회헌장 3항). 그러므로 교회의 원천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다.

13. 교회의 정의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	• ㉠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는 '아직'은 미완성인 교회이다.
②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	• ㉡ 이 개념은 교회의 지상상태를 더 잘 표현하며, 교계제도를 갖춘 교회 공동체의 가시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다.
③ 교회는 순례하는 교회이다. •	• ㉢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은총에 완전히 참여하여 그분과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교회의 영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14.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관을 현대사회 안에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1점

① 제도로서의 교회 ② 완전한 사회인 교회 ③ 친교로서의 교회 ④ 죄인들의 교회

15. 교회의 친교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점

① 교회 공동체의 친교 원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인간과 이루시는 일치다.
② 서로 다른 인간을 결합하는 일치와 친교의 끈은 '사랑'이다.
③ 인간은 스스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으며, 은총의 도움은 부차적이다.
④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의 생활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조건이다.



대림 제1주간 판공문제 답안지

※ 1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2점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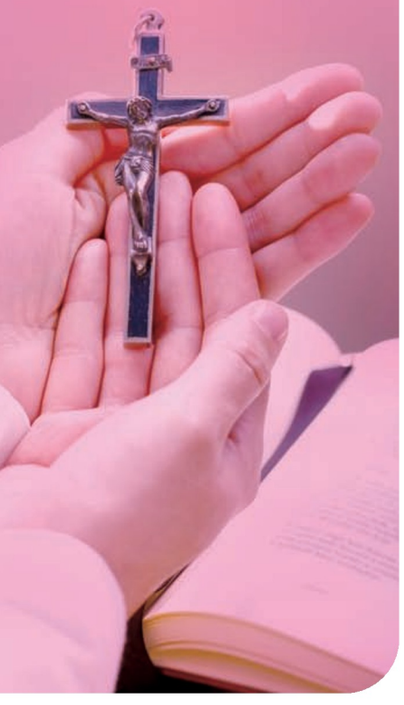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III

✣ 대림 제3주간

‘하느님의 말씀’

Dei Verbum



묵상으로의 초대

[대림 제3주일]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셨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사시며 인간에게 하느님의 내면을 알려 주심으로 모든 인간을 비추셨습니다”(요한 1,1–18 : 제2차 바티칸공의회 『계시헌장』 2항).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무엇보다 ‘사랑과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탄생의 순간부터 가난하고 겸손했으며, 전 생애를 통해 이웃 사랑이 하느님 사랑의 첫째가는 실천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그분께 자유로이 맡겨야” 합니다(계시헌장 5항).

‘자선주일’인 **대림 제3주일 복음**(루카 3,10–18)에서 세례자 요한 역시, 곧 오실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군중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세상의 굽고 거친 길을 ‘이웃 사랑’을 통해, 곧고 평탄한 ‘나눔의 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기득권은 평민을, 힘 있는 자는 약한 이를 배려하고 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십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로 시작해요

1. 초대기도 (성호를 긋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합시다)

2. 복음묵상

-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루카 3장 10–18절’(대림 3주일 복음)을 읽습니다.**
- **다른 한 분이 아래 글을 낭독합니다.**

✣ 나눔의 덕

“세례자 요한의 충고는 모든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함께하게 합니다. 세리나 군사, 농부나 도시인, 부자나 빈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온전한 덕이며 완전한 덕은 모든 것에 앞서야 합니다. … 사랑의 정도는 인간 조건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 암브로시우스, 「루카 복음 강해」 2,27

✣ 계시를 신앙으로 받아들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신앙의 복종’을 드러내야 한다. 이로써 인간은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고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그분께 자유로이 맡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려면 하느님의 도움의 은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계시헌장」 5항

- **가족 모두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3. 가족과 이야기 나누기

- **복음말씀과 묵상 글을 읽고, 침묵 중에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무엇입니까?**
-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계시를 나는 어떻게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4. 나와 가족의 신앙 실천표 (가족이 함께 작성하기)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작은 자선이라도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입시다.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실천 사항						

5. 마침기도 (가족이 잘 아는 성가를 부른 후, 서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줍니다.)



「계시헌장」의 중심내용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헌장』인 〈계시헌장〉은 라틴어 표현으로 Dei Verbum(데이 베르붐) 곧 '하느님의 말씀'으로 불린다. 이 헌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12월 7일)을 얼마 앞 둔 1965년 11월 18일에 반포되었다. 하느님 계시와 신앙 그리고 계시의 전달과 수용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트리엔트 공의회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승하려는 취지를 밝힌다. "그러므로 트리엔트 공의회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자취를 따라 하느님의 계시와 그의 전달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을 천명하며 온 세상이 구원의 선포를 들음으로 믿고, 믿으며 바라고, 바라며 사랑하게 하고자 함이다"(1항). 하지만 그 구성과 내용에서는 이전 공의회들에 비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다.

〈계시헌장〉의 구성

헌장은 총 6장 26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계시 자체와 계시에 대해 응답하는 신앙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하느님 계시의 전달인 성서와 성전에 대해 밝힌다. 제3장에서는 성서의 영감과 그 해석에 대해 전해주며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그리고 성서가 가지는 권위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교회 생활과 성서의 관련성을 밝힌다.

여기서는 1~3장과 6장을 중심으로 헌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계시는 하느님 당신 자신의 통교 행위

〈계시헌장〉은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해준다. 헌장은 우선 계시를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친교와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행위로 설명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 주시려 하셨으며, 이로써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이 계시로써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2항) 하느님은 책 뒤에 숨겨진 분 혹은 2000년 전의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와 사랑의 일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역사와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처럼 계시는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전해주는 하늘나라의 비밀스런 진리들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요한 3,16) 우리를 당신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계시에 대한 응답인 우리의 신앙은 믿어야 할 진리들을 참된 것으로 믿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신비에 우리 자신의 모두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행위가 바로 신앙이다.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신앙의 복종'을 드러내야 한다. 이로써 인간은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고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그분께 자유로이 맡기는 것이다."(5항)

헌장은 계시를 신앙의 자유로운 동의로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인격적 실재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2)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계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친교를 나누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보이시는가? 헌장은 하느님의 계시가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힌다.

우리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이며, 특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 계시 경륜은 서로 긴밀히 결합된 행적과 말씀으로 실현된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은 가르침과 그리고 말씀들로 표현된 사실들을 드러내고 확인하며, 말씀들은 업적들을 선포하며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 준다. 이 계시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 구원에 관한 심오한 진리가 중개자이시며 동시에 모든 계시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혀진다."(2항)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이요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안에서이다. 이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 아래 날로 자라고 성숙한다.

3) 계시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충만(2항)으로 고백한다. 계시는 막연한 관념이나 고착된 교리 내용이 아닌 살아계신 하느님 당신 자신의 활동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보여주시고 밝혀주셨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 한 가운데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신다.

헌장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태초부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을 살피시고 돌보셨다. 또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구세주를 기다리도록 하셨다(3항). 그리고 때가 차자 혈육을 취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업적, 죽음과 부활과 성령강림을 통해 당신 자신을 결정적으로 계시하셨다(4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육을 취하신 말씀이시며 "인간들에게 파견되신 인간"이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시며", 아버지께



서 맡기신 구원의 임무를 완수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이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현존과 출현으로 말씀과 업적, 표징과 기적으로 특별히 당신의 돌아가심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 마침내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계시를 완수하시고 하느님의 증거로 확고하게 하셨으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암흑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삶으로 부활시키시기 위한 것이다."(4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새로운 공적 계시를 바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4항).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 자신을 인간의 구체적 역사 안에서 드러내 보이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여주셨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삼위일체 사랑의 친교 안으로 부르시며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신다. 우리 인간은 그분의 사랑에 온전한 자유로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며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내적 도우심으로 날로 자라며 완성으로 나아가게 된다(5항).

4) 하느님 계시의 전달 : 성서(聖書)와 성전(聖傳)과 교도권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계시는 사도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된다(8항). 헌장은 하느님 말씀이 성서와 함께 성전(聖傳, Traditio)을 통해 전달된다고 가르치는데, 성전은 사도들에게서 전해진 것으로서 교회의 삶 전체를 의미한다. "사도들에게서 전해진 것 안에는 하느님 백성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고, 신앙을 키우는 데 기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교회는 자신의 가르침과 생활의 예배를 통하여 그 자신의 모든 것과 그리고 그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영속시키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한다."(8항)

하느님께서는 교회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며 당신의 진리 안으로 이끌어주신다.

헌장은 나아가 성서와 성전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밝힌다. "성전으로 교회는 성서의 온전한 정경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성전으로 성서는 한결 더 깊이 이해되고 교회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8항). 우리는 성서만으로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성서는 성전 안에서 충만하고 풍요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성서와 성전은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한 성스러운 유산을 형성한다"(10항).

하지만 하느님 말씀이 성서와 성전에 따로 나뉘어 일부분씩 담겨있다는 뜻은 아니다. 성서와 성전은 같은 원천에서 솟아나와 하나를 이루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한다. 이 둘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 나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9항). 그리고 성서와 성전을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교회의 교도권에 맡겨져 있다. "기록된 하느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10항).



5) 성서의 저자 : 하느님과 인간

헌장은 먼저 성서의 저자가 하느님이심을 밝힌다. "하느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도로 성서에 글로 담겨지고 표현되어 보존된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사도의 신앙에 따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을 그 각 부분과 함께 전체를 거룩한 것으로, 또 정경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이 책들이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것이고, 하느님께서 저자이시며, 또 그렇게 교회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11항) 성서는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룩한 책으로, 그 저자는 하느님 당신 자신이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나 지성을 무시하신 채 인간의 손만을 빌어 성서를 쓰시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인간 안에 활동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러므로 성서의 저자는 인간이기도 하다. "성서를 저술하는 데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신다. 하느님께서 몸소 그들 안에 또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시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 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다."(11항) 하느님께서는 저자들을 '통하여' 뿐 아니라 '그들 안에' 활동하신다. 성서를 저술하는데 있어 그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참 저자로서 하느님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인간과 통교하시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건네주신다. 여기에는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 외아드님을 보내주신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하느님의 진리와 거룩함이 늘 손상되지 않은 채, 영원한 지혜의 놀라운 '자기 낮춤'이 드러나 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고 보살피시면서 얼마나 당신의 말씀을 알맞게 사용하셨는지를 배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마치 예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인간들을 닮으셨듯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들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기 때문이다."(13항)

성서가 하느님의 책인 동시에 인간의 책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며,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어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로 전해주는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며, 그 해석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0, 12항).

6) 성서의 중요성

헌장은 제4장(14~16항)과 제5장(17~20항)에서 각각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다룬 후, 마지막 장인 제6장(21~26항)에서 '교회 생활과 성서'의 관계를 설명한다. 성서가 교회의 삶 안에서 위치하는 자리는 특별하다. "교회는 언제나 성서들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히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빵을 취하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21항)

헌장은 이처럼 성서가 지닌 중요성을 설명하며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나, 영적 독서를 통해서나, 또는 교회의 사목자들의 승인과 배려로 오늘날 놀라우리만큼 널리 퍼져 있는 적합한 성서 강좌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꺼이 성서에 다가서야 한다. 성서를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25항) (하지만 교회가 인정하고 허락하지 않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서 강좌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서의 올바른 이해와 해설은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회로부터 인정되지 않은 강좌를 통해 성서를 곡해하고 그리스도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미혹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한다.)

헌장은 다음의 말로 결론을 맺는다. "성체 신비에 자주 다가감으로써 교회의 생명이 자라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공경함으로써 교회의 영적 생명이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다"(26항). 성서는 이처럼 하느님 말씀이 되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삶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준다.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이제민, "계시헌장",『한국가톨릭대사전』권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377~379/ Paul Beauchamp, « Eléments de tradition »『전통의 요소들』, in Parler d'Ecritures saintes『성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Paris, Seuil, 1987, 11~27/ Henri Bouillard, "Révélation et Histoire"『계시와 역사』, in Enrico Castelli (éd.), Herméneutique et eschatologie『해석학과 종말론』, Paris, Aubier, 1971, 96~98.

판·공·문·제

대림 제3주간 III

1. 다음 중 대림 제3주일 복음(루카 3,10-18)에서 세례자 요한이 요구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1점

① 옷이나 먹을 것을 못 가진 이들과 함께 나눈다.
② 정해진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강탈이나 갈취를 삼가고 자신이 받는 것에 만족한다.
④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드린다.

2. 다음 중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헌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1점

①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②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③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④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3. 다음 중 <계시헌장>이 가르치는 계시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간을 당신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행위
②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주시는 천국의 비밀들
③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친교로 불러주시는 행위
④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4. 헌장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은?

①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자유로 응답하는 것
② 믿어야 할 교리 내용을 생각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
③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
④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따르며 그분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5. 다음 <계시헌장> 2항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점

"이 계시 경륜은 서로 긴밀히 결합된 행적과 말씀으로 실현된다. (　　)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은 가르침과 그리고 말씀들로 표현된 사실들을 드러내고 확인하며, 말씀들은 업적들을 선포하며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 준다. 이 계시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 구원에 관한 심오한 진리가 중개자이시며 동시에 모든 계시의 충만이신 (　　) 안에서 우리에게 밝혀진다."(2항)

6. 다음 중 <계시헌장>이 계시의 충만으로 가르치는 분(것)은? 1점

① 세례자 요한 ② 십자가 ③ 예수 그리스도 ④ 구원의 역사

7. 다음 중 <계시헌장>의 '계시'에 관한 가르침으로 올바른 것을 3개 고르시오.

①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비밀스런 신비를 당신이 선택하신 몇몇 인물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②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③ 믿어야 할 교리와 지켜야 할 계명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이다.

④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적 계시를 바래서는 안 된다.

⑤ 계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당신께 신앙의 응답을 드려야 한다.

8. 성서와 성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2개 고르시오.

① 성서와 성전은 하느님의 말씀을 각각 일부분씩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② 우리는 성령의 감도로 쓰인 성서 만으로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③ 교회의 삶 전체인 성전을 통해 우리는 성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④ 성서와 성전을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교도권에 있다.

9. 성전에 관한 <계시헌장> 8항의 설명에서 괄호 안을 채우시오.

"사도들에게서 전해진 것 안에는 (　　)을 거룩하게 이끌고, (　　)을 키우는 데 기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교회는 자신의 (　　)과 (　　)를 통하여 그 자신의 모든 것과 그리고 그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영속시키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한다."(8항)

10. <계시헌장> 9항의 설명에서 괄호 안을 채우시오.

"그러므로 (　　)과 (　　)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한다. 이 둘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 나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9항)

11. 다음 중 성서의 저자를 모두 고르시오.

① 성서를 저술한 이들 ② 하느님 ③ 세례자 요한 ④ 교도권

12. 다음은 성서의 중요성에 대한 <계시헌장>의 설명이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

"교회는 언제나 (　　)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히 (　　)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　　)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빵을 취하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21항)

13. 성서에 대한 <계시헌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서는 성령의 감도로 쓰인 책으로 신자는 성서를 읽고 하느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② 성서는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느님의 영원한 지혜의 '자기 낮춤'이 드러나 있다.

③ 성서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해석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성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삼아 인간의 자유와 의지를 무시한 채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신 책이다.

14. <계시헌장>을 지칭하는 라틴어 표현을 쓰시오. 1점

15. 우리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31쪽 신앙배움터 2)** 의 내용("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계시")을 참조하여 답하시오.



대림 제1주간 판공문제 답안지

※ 1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2점 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IV

✣ 대림 제4주간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묵상으로의 초대

[대림 제4주일]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사목헌장』1항).

이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인류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곧, 공의회는 인류 가족 전체와 인간이 살아가는 온갖 현실을 직시했으며, 이 세계는 인간의 노력과 실패 그리고 승리가 함께 새겨져 있음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상반되는 국면을 경험하는 세상을 향해, 창조주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풍요로운 섭리를 새롭게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 바탕에는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졌으나,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를 쳐부수시고 해방시킨 이 세계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변혁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사목헌장 2항)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찬 신앙이 자리합니다.

대림 제4주일 복음(루카 1,39–45)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태중에 계신 구세주께 ‘기쁨과 희망’의 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하지만 이 외침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현실에 대한 슬픔과 거기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그리고 내적으로는 엄격한 율법의 속박아래, 결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그 자체로 믿는 이들에게는 복음이자 구원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모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가족과 함께 기도로 시작해요

1. 초대기도 (성호를 긋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합시다)

2. 복음묵상

-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루카복음 1장 39–45절’(대림 제4주일 복음)을 읽고, 다함께 3분 동안 묵상합니다.**
- **다른 한 분이 〈마리아의 노래〉 낭독합니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
> – 루카 1,46–51

- **가족 모두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3. 가족과 이야기 나누기

- **복음 말씀을 읽고, 침묵 중에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무엇입니까?**
-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기쁨과 희망’ 또는 ‘슬픔과 고뇌’는 무엇입니까?**
-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각자의 삶에 어떤 모습의 희망을 가져다줍니까?**

4. 나와 가족의 신앙 실천표 (가족이 함께 작성하기)

- 우리 가족 혹은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축복을 하루 한 가지씩 적어보고, 그 복이 잘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실천 사항						

5. 마침기도 (가족이 잘 아는 성가를 부른 후, 서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줍니다.)



‘사목헌장’의 중심내용

사목헌장의 본래 명칭은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이다. 이 헌장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들 가운데 가장 길며, 공의회가 폐막하는 날(1965년 12월 7일) 반포되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목헌장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장엄하게 선포한다. 따라서 신앙인의 사회적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헌이며, 교회의 사회교리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림 4주 신앙 배움터는, 사목헌장의 선포목적과 본문의 배경을 담고 있는 ‘머리말과 서론부’를 요약해 살펴볼 것이다.

1. 사목헌장의 목적과 구성

이 헌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교황 요한 23세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소집 목적에 합치됨을 알 수 있다. 공의회의 목적은 교회의 이중 생명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교회의 내적 생명력(ecclesia ad intra) 곧 신앙과 은총의 보화에 대해서다. 그리고 둘째는 제2의 생명력인 교회 외부를 향한 생명력(ecclesia ad extra)에 관한 것으로, 연설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공의회는 교회가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 시대의 징표 읽기

사목헌장이 제시하는 ‘시대의 징표 읽기’는 오늘의 교회에도 여전히 깊은 영감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대의 징표들에 대해 공감과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화적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공의회 이후의 교회가 자기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제시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사목헌장 3항). 사목헌장은 교회 그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 시대의 특징을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명해 줄 의무를 지닌다”고 선언한다(사목헌장 4항).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회가 자신이 속한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하는 일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사목헌장의 이 선언은 정치 ·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2) 구성

사목헌장의 내용은 공의회가 개최되던 시기의 교회가 자기 당대의 징표를 읽어낸 것을 담고 있다.

사목헌장의 제1부는 인간 본성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포함한다. 여기서 헌장은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그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의 무신론과 무신론적 경향의 공산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1장). 이어서 인간 삶의 공동체성은 성경적 가르침임을, 현대사회 안에 만연된 개인주의의 풍조를 뛰어넘어 공동선의 추구와 사회적 연대의 지향이 그리스도교 사회 정의임을 밝힌다(2장). 인간의 활동들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론적 차원을 지니는 것이며(3장), 교회는 인간 개인과 공동체와 인간 활동 전 차원에서 하느님 나라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4장) 사목헌장은 강조한다.

헌장의 제2부는 그 시대가 직면한 몇 가지 긴급 과제들을 혼인과 가정(1장), 문화(2장), 경제(3장), 정치(4장), 국제 관계(5장) 라는 범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2. 〈사목헌장〉 머리말과 서론 요약

1) 머리말

헌장의 머리말은 그 선포 대상이 모든 사람임을 전제한다. 이에 헌장은 현대인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민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슬픔이기도 하다며, 교회와 인류와의 연대성을 확인한다. 이어서 공의회는 “오늘날의 인류가, 자신의 발명과 자신의 능력을 경탄하면서도, 사물과 인간의 궁극 목적과 관련해 고뇌에 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현존과 활동을 제시”하고자 함을 밝힌다. 따라서 공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인류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그 문제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춤으로써, 교회가 받은 구원의 힘을 인류에게 풍부히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로써 공의회는 인간의 진정한 구원과 인간 사회의 쇄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교회의 유일한 임무임을 강조한다(1-3항 참조).

2) 서론 :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

〈사목헌장〉 4항은,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어려움들을 대비시키며 현대사회의 특징을 묘사한다. 우선 오늘날 인간의 지식과 창조적 노력의 변화는 사물과 인간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이러한 사회 문화적 변혁은 종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을 널리 펼칠수록 언제나 그 힘이 인간 자신을 섬기도록 다스리지 못하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에는 기쁨과 희망 이면에 슬픔과 고뇌라는 역설이 공존하게 되었다. 헌장은 이러한 상황을 ‘풍요로운 재화와 경제력 이면의 기아와 빈곤’, ‘예리한 자유의식 저편에 사회적 심리적 예속’, ‘상호 의존과 필연적 연대 속의 대립과 분

열' 등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 놓인 동시대인들은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가치를 새로운 발견과 조화시키지 못하는 동요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음을 제기하고 새로운 응답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① 급격한 변화 대한 구체적 설명(5항)

오늘날 정신적 동요와 생활 조건의 변화는 과학과 기술이 중시되는 정신과 행동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과학기술 발전은 다른 문화 형태와 사고방식을 탄생시킨 것이다. 또한 역사 자체의 흐름도 급격히 빨라져 이제 인류 사회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처럼 받아들여진다.

결국 인류는 기존의 정적인 세계관에서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세계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의 방대하고 새로운 복합성을 대두시켰고, 교회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종합을 요구받고 있다.

② 사회 질서의 변화(6항)

인간 정신의 변혁은, 전통적 지역 공동체와 사회의 인간관계를 극심하게 변화시켰다. 곧 산업사회와 도시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사상과 감정이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화'가 언제나 적절한 인격적 인간성숙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③ 정신과 도덕, 종교의 변화(7항)

인간정신(5항)과 사회구조의 변화(6항)는 기존 가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제도와 오늘날의 현실상황의 부조화 속에서 고뇌와 반항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종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두 형태로 드러난다. 우선, 날카로워진 그들의 비판력은 종교를 정화하고 더욱 인격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성찰을 요구하는 쇄신의 방향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학의 진보와 새로운 인본주의의 요구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실천에서 멀어지는 현상이다. 이는 철학, 문학, 예술 분야의 가세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고 있다.

④ 현대 세계의 불균형(8항)

이토록 급속하고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변혁은 모순과 불균형을 낳고 심화시킨다. 곧 '설천이성과 이론적 사색', '실용능률 추구와 도덕적 양심 요구', '인간 활동의 전문화와 사물의 전체적 전망' 사이의 불균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대차, 남녀 간, 종종과 계층 사이의 불평등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은 상호불신과 증오 그리고 분쟁과 환란을 초래해, 인간이 그 원인이자 희생제물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⑤ 인류의 보편적 열망(9항)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점' 속에서도 오늘날 인류는 피조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는 확신을 키워간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사회, 경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더 나은 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경제적 예속과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한계를 체험한 인류는 '이제야 처음으로' 모든 민족이 문화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베풀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급속한 변화 이면에 감추어진 '인류의 보편적 열망'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인류는 개인과 집단이 인간 품위에 알맞은 만족스럽고도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결국 세계는 '강하면서도 약한', '최선을 이루거나 최악을 저지를'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자유와 예속', '진보와 퇴보', '형제애와 증오의 길'에 열려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인간은 스스로 불러일으킨 힘들이 인간을 억압할 수도 있고 인간에게 봉사할 수도 있으므로, 그 힘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인간 자신의 책임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⑥ 인류의 심각한 의문(10항)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상생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본격적으로 대답하기에 앞서 〈사목헌장〉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가 지닌 믿음을 요약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인간이 자신의 드높은 소명에 응답할 수 있게 하셨다. 둘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하늘 아래서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셋째, 불멸의 것들은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궁극의 토대를 두고 있다.

헌장은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인간의 신비를 밝히고, 현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합력하기 위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H. v. 스트라렌(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해설총서 1』, 현석호 역, 성바오로출판사, 1988/ 鄭夏權, "사목헌장",『한국가톨릭대사전』권6,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3939~3943/ Christopher Jamison(외), 『산다는 것이란 되어 간다는 것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읽기』, 정일 역, 분도출판사, 2000/ 정희완, "사목헌장 해설상", 〈가톨릭 신문〉(2012.3.18).

판·공·문·제

1. 대림 제4주일 복음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1점

① 구세주 탄생에 대한 기쁨과 희망 ② 성 엘리사벳의 신앙 ③ 인류의 죄 ④ 율법의 속박

2.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가운데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선포한 헌장은? 1점

① 전례헌장 ② 계시헌장 ③ 교회헌장 ④ 사목헌장

3. 다음은 〈사목헌장〉 1항의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말을 쓰시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　　)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4. 〈사목헌장〉의 목적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시대의 징표들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인류와 대화적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태도
② 교회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시대의 특징을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해명해줄 의무
③ 교회가 자신의 속한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이다.
④ 사목헌장의 선언은 정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새로운 길 제시

5. 사목헌장의 선포대상은 누구인가? 1점

① 믿지 않는 이들 ② 위정자 ③ 그리스도인 ④ 인류 전체

6. 사목헌장이 진단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무신론의 경향
② 인류가 과학의 발전에 경탄하면서도, 사물과 인간의 궁극목적과 관련해 고뇌에 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③ 인간은 자신의 힘을 널리 펼칠수록 창조적 에너지를 얻고, 자연만물을 잘 다스린다.
④ 현대에는 기쁨과 희망 이면에 슬픔과 고뇌라는 역설이 공존하게 되었다.

7~8. 다음은 현대 세계의 사회질서 변화(사목헌장 6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중에서 차례로 고르시오.

인간 정신의 변혁은, 전통적 지역 공동체와 사회의 인간관계를 극심하게 변화시켰다. 곧 산업사회와 도시화 그리고 (7.　　)의 발달로 사상과 감정이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런 (8. '　　')가 언제나 적절한 인격적 인간성숙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① 교통 ② 사회화 ③ 의학 ④ 커뮤니케이션 ⑤ 현대화

9. '현대 세계의 불균형'(8항)에 대한 공의회의 성찰로 바른 것은?

① 기술의 발달과 인간 활동의 전문화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회를 이루었다.
② 현대의 급속한 변화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대와 성별, 계층 사이에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③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정신과 도덕 그리고 종교심의 성숙을 이끌었다.
④ 경제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0. 공의회가 바라본 '인류의 보편적 열망'(9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모든 민족이 문화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베풀어져야 한다는 확신
②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
③ 인류는 개인과 집단이 그 품위에 맞는 자유로운 삶을 갈망한다.
④ 과학기술의 힘은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올바로 다스려져야 한다.

✣ 다섯 문제는 <대림시기 전례상식>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11. 교회 전례 상, 대림시기의 세 가지(신학적)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은? 1점

①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탄 축일, 즉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준비의 시기이다.
② 세말에 다시 오실 성자를 기다림과 심판에 대한 대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희망의 시기이다.
③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기이다.
④ 성자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닦기 위해 회개를 통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12. 대림시기 각 주일이 반영하는 전례 성격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대림 1주 •	• ㉠ 구세주 탄생의 임박에 대한 준비와 기쁨
② 대림 2주 •	• ㉡ 세례자 요한의 구세주 오심에 대한 예고와 속죄 권유
③ 대림 3주 •	• ㉢ 성모마리아의 넘치는 기쁨
④ 대림 4주 •	• ㉣ 세말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

판·공·문·제

✣ 대림 제4주간 IV

13. 대림시기의 전례와 관계있는 것을 3개 고르시오.

① 대림시기에는 제대 주위의 화려함을 피하고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다.
② 대림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이므로 알렐루야를 하지 않는다.
③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며 단독 연주는 피한다.
④ 사제는 회개와 속죄의 뜻으로 자색 제의를 입는다.
⑤ 대림시기가 시작되는 대림 1주일은 미사 중에 재를 얹는다.
⑥ 대림시기는 성탄 대축일 전까지 40일을 지낸다.

14. 다음 중 대림시기 미사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점

① 구세주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재대 한편에 '구유'를 설치하고, 미사 때 마다 경배한다.
② 미사 중 사제는 회개와 속죄의 뜻으로 자색 제의를 입는다.
③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며 단독 연주는 피한다.
④ 아직 구세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다.

15. 대림시기의 미사와 성무일도의 기도문들은 주로 두 예언자들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보기에서 이 두 예언자를 고르시오.

① 아모스 ② 이사야 ③ 에제키엘 ④ 세례자 요한 ⑤ 예레미야 ⑥ 즈카르야



대림 제4주간 판공문제 답안지

※ 1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2점 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새 사목교서 『교회와 신앙』을 반포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적 쇄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 동안 수원교구가 열의를 다해 추진해 온 여러 사목정책이 더욱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회개를 통한 신앙의 내적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교회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향상시키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더욱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교회와 신앙』 16쪽).



성명 · 세례명 :

전화번호

본당 :

구역 · 반

점수 :

인류의 빛 *Lumen Gentium*

2012 대림 · 성탄 판공문제지

발행일 : 2012년 11월 17일 / 구성 · 출제 : 수원교구 복음화국 기획연구부 / 발행인 : 이용훈 / 편집인 : 문희종
발행처 : 수원교구 복음화국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 전화 : 031-244-5035 / FAX : 031-244-7224
E-mail : evan@casuwon.or.kr / Homepage : www.casuwon.or.kr

디자인 · 인쇄 : (주) 하상출판사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 전화 : 031-243-1880 / FAX : 031-248-4842
E-mail : hasang@casuwon.or.kr / Homepage : www.casuwon.or.kr

본 출판물에 대한 사항은 수원교구 복음화국으로 사전 문의 바라며 모든 내용의 임의 변경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